

타이어, 타이 쿠데타가 호재로...

삼성증권, 천연고무 수입 타이에 의존 ... 천연고무 가격하락 제동

삼성증권은 9월21일 타이어의 쿠데타가 원료인 천연고무 가운데 상당분을 타이어에서 수입하는 타이어기업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비중확대 견해를 유지했다.

김학주·김보영 애널리스트는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 구입분 가운데 55%를 타이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으로 천연고무 공급차질을 우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연고무의 선물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간 농부들의 지지를 받으며 높은 농산물가격을 유도했던 탁신 총리가 물러난 영향이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가 원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원자재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천연고무 가격이 1%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0.12%p씩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21>